



## 미래부 산하 6개 연구기관 보안USB 의무사용 규정 위반

- 3년간 보안USB 분실도 7개 연구기관서 34건 발생 -

□ 민병주 의원(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미래부 및 산하기관 보안USB 등 보조기억매체 분실 현황 및 분실사유”에 따르면,

- 미래부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보안 USB와 같은 보안용 보조기억매체 분실이 총 7개 기관에서 34건 발생하는 등 업무 보안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기관별 분실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전기연구원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 6건, 한국철도기술연구원 6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5건, 한국원자력의학원 3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건으로 나타났다.
- 또한 미래부 및 미래부 소속 기관의 보안USB 도입여부를 살펴보면, 6개 연구기관은 보안USB 의무사용 규정을 위반하여 미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 USB는 속도가 빠르고 대용량이며 사용하기 간단하면서도 휴대성이 높은 장점이 있어 최근 가장 보편적인 휴대용 저장 장치가 되었음. 그러나,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내부 기밀자료의 외부유출의 매체로 악용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일례를 들자면, 지난 5년간 산업기술 유출이 총 204건 발생하였는데, USB나 외장하드에 의한 유출이 전체 42%나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07~2011년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산업스파이 사건을 분석한 결과>

기술유출 총 204건

- 유출 사례별 (개인영리 61%(125건), 금전유혹20%(41건), 인사불만8%(16건), 처우불만6%(13건)
- 유출 감행 주체별(전직 직원 62%(127건), 현직직원 17%, 협력업체 13%, 기술 관련 과학자 2%등)
- 분야별(전기전자가 37%(75건), 정밀기계(27%), 정보통신(15%), 정밀화학(9%), 생명공학(3%)
- 유출 유형별(USB나 외장하드 42%, 내부공모 25%, 매수 23%, 공동연구 2%, 위장합작 1%)

출처 :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연합뉴스(2013.4.27.)

- 이에 국가정보원은 2007년 초, 국가와 공공기관의 기밀 유출 방지를 위해 보안USB사용에 관한 ‘USB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 보안관리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1년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2008년 4월부터는 각급 공공기관들은 보안USB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함.

### <USB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 보안관리지침>

제2조 (적용범위) ①이 지침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과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산하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교육기본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학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산하기관에 대하여는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안적합성 검증필 USB메모리 도입에 관한 경과조치)각급기관의 장은 이 지침 시행후 1년 이내에 제4조의 규정에따라 기존에 사용하는 USB메모리를 보안적합성 검증을 필한 USB메모리로 교체하여야 한다.

- 민병주 의원은 “최근 3년간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 금액이 5조 6천 억원에 이르는 등 공공기관의 기밀 유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 고 강조하며,
- 더욱이, “보안에 철저하게 대응해야 할 미래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공공기관의 기밀 유출 방지를 위해 도입한 보안USB 의무사용 규정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더욱 큰 문제” 라고 지적함.
  - 민의원은, “미래부는 산하 연구기관의 보안 의식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의무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연구기관에 대해서 조속히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를 당부한다” 고 강조함.

## 미래부 및 산하기관 보안USB 등 보조기억매체 분실현황 및 분실사유

순번	기관명	보안USB도입여부	보안USB분실건수			분실사유
			2011	2012	2013	
1	미래창조과학부	도입	0	0	0	
2	국립전파연구원	도입	0	0	0	
3	중앙전파관리소	도입	0	0	0	
4	국립과천과학관	도입	0	0	0	
5	국립중앙과학관	도입	0	0	0	
6	우정사업본부	도입	0	0	0	
7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도입	0	0	0	
8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도입	0	0	0	
9	한국천문연구원	도입	0	0	0	
10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도입	0	0	0	
1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도입	0	0	0	
12	한국한의학연구원	도입	0	0	0	
13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도입	0	0	0	
14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도입	0	0	0	
15	광주과학기술원	도입	0	0	0	
16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도입	0	0	0	
17	한국인터넷진흥원	도입	0	0	0	
18	한국정보화진흥원	도입	0	0	0	
19	한국화학연구원	도입	0	0	0	
20	한국연구재단	도입	0	0	0	
21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도입	0	0	0	
22	한국식품연구원	도입	0	0	0	
23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도입	0	0	0	
24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도입	0	0	0	
25	한국화학연구원	도입	0	0	0	
26	우체국금융개발원장	도입	0	0	0	
27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도입	0	0	0	
28	우체국물류지원단	도입	0	0	0	
29	우체국시설관리단	도입	0	0	0	
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도입	0	0	0	
31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도입	1	1	0	사용자 부주의
32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도입	0	0	1	사용자 부주의
33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도입	3	2	0	사용자 부주의
34	한국원자력연구원	도입	1	2	3	사용자 부주의
35	한국원자력의학원	도입	1	2	0	사용자 부주의
3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도입	2	4	0	사용자 부주의
37	한국전기연구원	도입	2	7	2	사용자 부주의
38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미도입	-	-	-	
39	기초과학연구원	미도입	-	-	-	
40	한국과학기술원	미도입	-	-	-	
41	산업기술연구회	미도입	-	-	-	
4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미도입	-	-	-	
43	한국과학창의재단	미도입	-	-	-	